

광주 대중교통 할인... 전남 출생기본수당 지급



내년부터 광주에서 어린이 무료 등 대중교통 할인 정책인 '광주 G-패스'가 본격 시행된다. 전남에서는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최대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된다. 광주 시와 전남도는 2025년 새해 민생·복지시책 등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30일 발표했다.

광주시, 복지 등 6개 분야 53개 통합돌봄 확대...의료서비스 결합 AI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시행 등

전남도, 민생·농업분야 등 124건 지역사랑상품권 3500억원 발행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금 인상

●광주시

광주시는 2025년에 복지·돌봄, 아동·보육, 청소년, 경제·일자리 등 6개 분야 총 53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밝혔다.

복지·돌봄 분야의 경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의료 서비스와 결합한다. 개인별 의료매니지먼트 및 보건소 통합돌봄건강센터와 공동 관리로 의료돌봄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방문간호·방문구강 서비스 신설, 보건소 방문진료 활동 연계 등을 통해 광주다움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자활성공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자활참여자 중 민간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상태를 6개월 간 지속하면 5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6개월을 더 지속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을 지급한다.

아동·보육 분야에선 야간·휴일 영업 등 근로시간이 긴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출산 양육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광주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아동양육자는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총 360만원 상당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여성 자영업자는 월 100만원씩, 3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대체인력비를 지원받는다. 또 기존 9000원의 단가로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은 9500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청년 분야에서는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지역사회 진입과 자립 촉진을 위해 구직활동 지원비가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구직역량 강화프로그램 및 기업탐방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또 '청년, 광주 어때'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청년들은 '광주 3일 살기' 동안 광주 문화와 축제 등 다양한 체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이에 따른 체험비, 숙박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선 초등학교부터 10시 출근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지원 규모가 300건에서 500건까지 대폭 확대된다. 건당 월 37만 4000원이 지급되던 지원액은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AI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광주지역 및 유치 AI기업은 AI 최소요건제품 제작·사업화 및 투자유치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마케팅, 실증, 판로 개척, 인증 등을 기업에 맞춰 선택·지원 받게 된다.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지원 사업 및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규모가 확대된다. 생활임금, 새일여성 인턴지원금, 전략직물 직불금의 지급 단가가 인상된다.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본인부담금)의 70%를 지원하고,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생활기반 분야에선 대중교통 할인 정책인 '광주 G-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은 반값, 성인은 K-패스 연계 추가 환급을 통해 30%(청년)~50%(65세 이상 어르신)까지 대중교통비가 할인된다.

의료 부분에서는 난임 시술비의 지원 기준이 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변경·확대되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대상도 임신 희망 부부에서 모든 20~49세 남녀로 변경되며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된다.

주거·교육 부분에서는 임차급여 기준임대료가 기존 대비 약 5%,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이 기존 대비 약 29% 인상되는 등 주거급여 지원금이 인상 지급된다.

일반행정 분야에선 주말 및 공휴일 주차간 잔디광장, 기념수 동산, 장미공원, 1층 시민홀 등 시청사 내외부를 예식공간으로 개방한다. 대관료는 무료이며 실비수준의 사용료는 야외시설 1일 1만원, 청사 내부인 시민홀은 시간당 1만원으로 시

민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참전명예수당이 확대, 인상된다. 보훈명예수당 수령 대상자에 미참전 공상군경이 추가되고 지급액이 월 5만원에서 월 6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65~79세), 13만원(80세 이상)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이 각각 11만5000원, 15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연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역상권 침체 개선을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주거용 외(상가) 용도비율이 전체 연면적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전남도

전남도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24건을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민생안정시책에 △지역사랑상품권 3500억원 발행 및 할인을 10% 지원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촉진 △영세 음식점 약 2만개소에 공공요금 비용 30만원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분 차액 50% 지원 △경로당 9500여 개소에 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의 부식비 지원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어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일자리·경제 분야는 △수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강화를 위해 외국어 누리집 제작 추가 지원 △선박용 조선블록 제작 업체에 자동화 장비 구입비를 기업당 최대 9000만원 지원 등을 시행한다.

또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전남 투자기업 보조금(현행 50억원 한도)을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에 최대 3억원, 3.9% 저리융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상반기까지 지원한다.

농업·축산 분야에서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무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여성농어업인 문화·복지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행복바우처의 지원 대상 기준 75세 이하에서 80세 이하까지 확대 등이다.

유기·무농약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단가도 25만원(ha당) 인상하고, 품목별 유기·무농약 지원단가를 12만~14만원 인상

하는 한편 전략직물직불금 품목 중 밀의 지원단가를 ha당 50만원, 조사료는 70만원을 각각 인상한다.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전남 수산물 가공식품의 수출증대를 위한 국제식품인증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확대 △담주변지역 지원사업 기준 환경부 소관 전체 담으로 확대 등이다. 특히 양식면허 연장은 기존엔 별도의 평가 없이 법적 요건을 갖추면 발급 가능했으나, 지속 가능한 양식업 체계 구축을 위해 심사·평가제도도 새롭게 시행한다.

관광·문화·체육 분야는 △여행 기회가 적은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해 행복여행활동 지원금액을 인당 16만원(당일), 35만원(1박2일)에서 18만원(당일), 38만원(1박2일)으로 확대 지원 △출생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책 꾸러미(3권) 선물 △전남매우 프로젝트 단편영화 제작 추가 지원 등이다.

복지·인구·여성 분야는 △2024년 출생아부터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전남도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영구피임 시술을 받은 도민에게 임신을 위해 복원시술비 정관 50만원, 난관 10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이 민간시장에 취업하면 1년간 최대 150만원 지원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독세대는 8700원, 부부 세대는 1만3920원 인상 등도 추진한다.

안전·건설 분야는 △도민안전공제 보험 보장항목을 기존 20개 항목에 일반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성범죄 피해 위로금 등 3가지 보장항목을 추가해 총 23종으로 확대·보장 △전남에 주소를 둔 장애인에게 자동차 일반검사소 검사비를 중증장애인에게 50%, 경증장애인에게 30%씩 지원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을 현행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 등이다.

일반행정 분야는 △전남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에게 순천·강진 의료원 건강검진비 50% 감면 혜택 추가 △직계존비속이 없는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형제·자매 중 1인에게도 생활지원금과 민주명예수당 지원 등이다. 최권범·오지현 기자

광주 보문고, 교사 열정·역량 강화 교육 '글로벌 리더' 육성

서울·고려대 등 합격자 다수 배출 과학 분야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보문학숙, 시설·환경 든든한 지원 미술관·박물관 등 예술 소통 공간



광주 보문고등학교가 2025학년도 대학 수시에서 상위권 대학에 합격생을 다수 배출했다. 사진은 광주 보문고 전경.

광주 보문고등학교가 2025학년도 대학 수시에서 상위권 대학에 합격생을 다수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교사들의 교육 열정과 학생들의 글로벌 리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 프로그램, 시설·환경 등이 어우러진 결과물로 보여진다.

30일 광주 보문고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학 수시에서 서울대 물리학과 1명을 필두로 고려대 의예과를 포함해 의예과 5명, 치의예과 3명, 약학과 4명의 합격생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등 상위권 대학에도 합격생을 배출했다.

보문고는 지난 2017년부터 교육부 주관, 2022년부터는 교육청 주관으로 과학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과학실에 가상현실(VR) 기계 등을 도입·활용해 지능형 과학실로 새롭게 조성하고,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등 다양한 과학교과를 개설했으며 2024년에는 과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DNA 추출실험, 내진설계 건축물 설계 등 교내 테마탐구 교실을 18회 운영해 왔다.

과학중점학교를 8년여간 운영하면서 학생 중심의 학습, 핵심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적

용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 보문고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학생들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 분야 등에서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반영해 학생들의 진학에도 책임을 다하고 있다.

학교법인 보문학숙도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에 맞춰 시설·환경 등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사학기관 운영활성화 대회에서 최우수법

인으로 선정된 보문학숙은 사립학교법정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해 사학법인 중 재정 건전성 및 자립도가 높은 사학으로 평가받았으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6층 규모의 최신식 시설의 기숙사 보문학숙과 미술·박물관인 동곡뮤지엄을 운영하고 있다.

기숙사는 친환경적인 건축자재를 사용해 공기 유통이 잘 되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기숙사 한가운데를 정원으로 설계해 자연 풍광을 살리면서 아토피 학생들을

위해 기숙실을 편백나무로 마감, 학생들의 건강을 배려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정보자료실, 세미나실 등을 이용해 토론 및 자기주도적학습을 하고 방과후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효율적인 학습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교내에 위치한 미술관과 박물관, 도자기 체험실 등이 들어서 있는 복합문화공간도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즐기며 예술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참여적 공간,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상상력을 기르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학생들은 미술, 한국사 등 교과 수업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 이곳에서 작가와의 인터뷰, 릴레이 아트토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심미적 감성 역량과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고 있다.

최인기 보문고 교장은 "학생들의 적성과 요구에 맞는 진로 진학 프로그램과 핵심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올바른 인성교육으로 학생들이 선한 영향력을 함양하도록 해 인간다움이 넘치는 휴머니스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